

2012년 보리수매 폐지… “우린 걱정 없지요”

강진, 유기농 겉보리·우리밀 재배

일화·밀다원서 전량 수매… 쌀보리보다 181% 고수익

강진군에서 2012년부터 보리수매 폐지로 인한 대안농업으로 계약재배 된 유기농 겉보리와 우리밀이 농가소득에 흥자료를 톡톡히 하고 있다.

14일 군은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농 겉보리와 우리밀을 (주)일화와 SPC 그룹계열 (주)밀다원에서 15~17일 전량 수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매하게 될 유기농 겉보리와 우리밀은 지난해 벼 유기인증 농 가의 소득증대방안으로 (주)일화, SPC그룹계열 (주)밀다원과 계약재

배의 업무협약체결에 따른 물량이다.

16일 전량 수매되는 유기농 겉보리는 총 1천400포대(40kg)로, 강진군 신전면과 도암면 일대 유기농산물인 증단지 2개소(15ha)에 재배해 생산 됐다.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에는 모두 11 농가가 참여해 1포대 1등급 기준으로 6만원에 전량 수매하며, 수 매가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8천400여 만원의 농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같은 면적으로 쌀보리보다 조수의 기준 181% 높은 수치다.

또 우리 밀은 16일 강진읍·군동면· 칠량면·마량면·도암면·신전면·병영 면에서, 17일 성전면에서 40kg 기준 1만5천 포대를 수매한다. SPC그룹계

열(주)밀다원과 계약재배를 통해 관 내 230여 농가에서 160ha에 재배한 우리 밀은 일반 쌀보리 1등급 3만910 원보다 높은 가마당 3만4천원에 전량 납품된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경기도에 소재 한 두보식품(주)은 15ha 규모의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유기농 쌀보리 38t를 전량 수매,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목포 원도심 편안·쾌적

전봇대·전깃줄 사라져

목포시 원도심에 전봇대와 전깃줄이 모두 사라졌다. 목포시는 상가빌집 지역인 원도심에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한국전력 목포지점과 공동으로 지난 해 11월 시작한 ‘짧음의 거리’ 400m 와 수문로 900m 등 모두 1.3km 구간의 지중화 사업이 모두 끝마쳤다.

이번 공사로 수문로와 짧음의 거리의 전신주와 전깃줄이 모두 사라져 보행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게 됐고, 짧음의 거리는 새롭게 디자인해 산뜻한 도심으로 탈바꿈했다.

/목포=임영진기자 lyc@

고로쇠 수액 식품 개발 나섰다

광양시, 수정과·동치미 등 상품화

광양시가 국내 처음으로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을 활용한 식품개발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고로쇠 수액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최근 순천대 응역팀이 참가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하는 등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가 고로쇠 수액 상품화에 나선 것은 특정기간에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데다 갈수록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대체 수요 개발

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광양 시와 순천대 응역팀은 수정과·동치 미·식초 등 우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위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와 음료류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광양시가 고로쇠 수액 상품화에 나선 것은 특정기간에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데다 갈수록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대체 수요 개발

필요성과 함께 월별식품 상품화에 따른 시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채취해 1차 판매에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돋우는 취지이다.

광양시는 오는 11월 말 순천대 응

역팀의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사업을 본격화해 식품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제조법 등을 표준 매뉴얼로 제작, 농 가에 보급해 또 하나의 특산 향토식 품으로 육성,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세 일 글

“지역사회에 맞는 치안서비스 주력”

우형호 광양경찰서장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공정한 법집행이 우선인 경찰상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일 취임한 우형호(55) 광양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식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료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회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출신인 우 서장은 지난 82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

하고 경찰에 투신, 83년 강원 대

백경찰서를 시작으로 전남지방경찰청 고통 안전계장, 제주지방경찰청 홍보 담당관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은희 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10월 29일부터 ‘국향대전’

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자 운영을 비롯해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 ▲전시관 대기인파에 대한 대책 ▲축제 대비 시 가지 정비 ▲재난사고 예방 및 관리 ▲입장권 검표 방식 개선 등 축제 준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박윤식 함평 부군수는 “올해 새롭게 장소를 옮겨 열리는 국향대전을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로 만들고자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10월 29일부터 ‘국향대전’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25일 동안 함평 액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

함평군은 최근 국향대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일정과 장소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개최장소를 기존 자연생태

공원에서 함평 액스포공원으로 변경

하고, 대형 황소 국화조형물을 비롯

해 승례문양 성벽과 대형 수목형 국

화단 등 새로운 국화작품들을 선보이

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자 운영을 비롯해 ▲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 ▲전시관 대

기인파에 대한 대책 ▲축제 대비 시

가지 정비 ▲재난사고 예방 및 관리

▲입장권 검표 방식 개선 등 축제 준

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박윤식 함평 부군수는 “올해 새롭

게 장소를 옮겨 열리는 국향대전을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로 만들고자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10월 29일부터 ‘국향대전’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25일

동안 함평 액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

함평군은 최근 국향대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일정과 장소 등을 확정

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개최장소를 기존 자연생태

공원에서 함평 액스포공원으로 변경

하고, 대형 황소 국화조형물을 비롯

해 승례문양 성벽과 대형 수목형 국

화단 등 새로운 국화작품들을 선보이

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자 운영을 비롯해 ▲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 ▲전시관 대

기인파에 대한 대책 ▲축제 대비 시

가지 정비 ▲재난사고 예방 및 관리

▲입장권 검표 방식 개선 등 축제 준

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박윤식 함평 부군수는 “올해 새롭

게 장소를 옮겨 열리는 국향대전을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로 만들고자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10월 29일부터 ‘국향대전’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25일

동안 함평 액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

함평군은 최근 국향대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일정과 장소 등을 확정

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개최장소를 기존 자연생태

공원에서 함평 액스포공원으로 변경

하고, 대형 황소 국화조형물을 비롯

해 승례문양 성벽과 대형 수목형 국

화단 등 새로운 국화작품들을 선보이

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자 운영을 비롯해 ▲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 ▲전시관 대

기인파에 대한 대책 ▲축제 대비 시

가지 정비 ▲재난사고 예방 및 관리

▲입장권 검표 방식 개선 등 축제 준

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박윤식 함평 부군수는 “올해 새롭

게 장소를 옮겨 열리는 국향대전을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로 만들고자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10월 29일부터 ‘국향대전’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25일

동안 함평 액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

함평군은 최근 국향대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일정과 장소 등을 확정

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개최장소를 기존 자연생태

공원에서 함평 액스포공원으로 변경

하고, 대형 황소 국화조형물을 비롯

해 승례문양 성벽과 대형 수목형 국

화단 등 새로운 국화작품들을 선보이

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자 운영을 비롯해 ▲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 ▲전시관 대

기인파에 대한 대책 ▲축제 대비 시

가지 정비 ▲재난사고 예방 및 관리

</